

NEWS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강기정 “삼성전자 광주공장 물량 해외이전 취소”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도, 21만8000여명에 1311억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어업인 21만8000여명, 1311억원 규모로 확정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조기 지급한다.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농어업인에게 농기당 60만원씩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전남도와 시군은 최근까지 297개 읍면동을 통해 총 21만8486건의 공익수당 지급신청을 받았으며,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확정 절차를 마무리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역 읍면동 사무소나 농협 등에 방문해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민생안정 차원으로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해 영농 준비와 함께 침체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윤 탄핵 심판’서 계속

두 사건의 선고 일정이 겹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고려한 관측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그러나 현재가 이를 연달아 선고기일을 잡은 적이 없는 데다가 특히 사안이 중대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이 작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따라서 현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께나 21일 등 다음 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현재가 각각의 쟁점에 대해 속고를 거듭해 결론을 도출할 경우 이달 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도 구형 냉장고 생산...프리미엄 생산량도 늘려 이번주 내 윤 탄핵 이뤄져야 국민혼란 최소화 주장도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생산물량 일부를 해외(멕시코)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취소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어디로 뭉치 모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앞에서 지역 산업과 경제를 지키는 것은 큰일이다”며 “이 때문에 지난 1월 22일 금호타이어, 지난달 27일 기아차 광주공장, 지난 10일 삼성전자 광주공장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경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광주의 주요 대기업들이 트럼프발 관세 파고를 막아줄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금호타이어는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높은 5조원으로 잡았고, 기아차도 3년 연속 50만대 이상 생산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 역시 매출을 2016년 2조

원에서, 지난해 5조원으로 끌어올리는 등 매출 규모를 적극 늘리고 있었다”며 “삼성전자는 멕시코로의 물량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 시키고 컨베이어벨트 등 혁신에 투자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프리미엄 물량을 늘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광주공장은 멕시코에 부여된 관세폭탄 때문인지 구형 모델 생산을 멕시코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유호하지 않고 생산물량을 지난해와 비교해서 전혀 줄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내년은 모르겠지만 올해는 프리미엄 물량을 늘리기 위해 컨베이어벨트도 620m에서 450m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라인 축소로 인한 고용 감소가 우려돼 질문 했는데 ‘고용 변화가 없다’고 답변해 안심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또 전날 퇴근 시간에 이날 출근시간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 탄핵’ 1인시위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광주 민간공항 이전 등에 대한 저담회를 출입기자들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했다. 강 시장은 “파면이 돼야 하는 것은 변함 없지만 늦어지면 경제·정치적으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 될 것이며 (탄핵 기각 등) 이상신호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더 커질 것이다”며 “이번주에 결정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고 강조했다.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3월 중에 무안공항 재개항에 대해 발표를 한다고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국토부 발표를 보고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무안공항이 서남권의 관문공항으로 재탄생할 수 있

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와 전남 시도지사가 조만간에 만나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조기대선에 대비해 광주는 지역 공약, 매가시티, 국가공약, 군공항 이전 등이 각 정당에 대한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 RISE사업 성공...‘통합관리 플랫폼’ 가동

3031억 들여 5대 프로젝트 사업관리 디지털 전환망 구축

전남RISE센터는 11일 전남인재개발원에서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전남 RISE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구축한 ‘통합관리 플랫폼’ 설명회를 열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효율적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대학별 사업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 정보 작성과 사업계획서 입력 등 공모사업 신청·접수를 위한

세부 시스템 사용 교육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성과지표 입력, 회계시스템 이용, 대학별 정보공유 등 현장에서 시스템을 100% 활용하도록 다양한 실무 교육을 했으며, 통합플랫폼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학별 사업 진행 상황을 상호 공유했다.

온라인 통합플랫폼은 5대 프로젝트 15개 단위과제, 총사업비 3031억원인 전남

RISE사업의 신청·접수와 평가·선정, 사업비 집행·관리와 성과평가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시스템이다.

손영곤 전남RISE센터장은 “전남도와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메가프로젝트인 RISE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에 나서겠다”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학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도, 근로자 건강관리로 중대재해 예방

전문의 위촉...권역별 순회상담

전남도는 산하기관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2025년 산업보건 운영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직업성 질병 예방 및 안전한 근

로 환경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2022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위촉해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검토, 건강 보호 조치, 건강장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화산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승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위촉, 2년간 근

로자 809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서부권, 동부권, 중부권을 분기별로 순회하면서 산업보건 의 건강상담을 운영한다.

요 상담 내용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과 유질환자 추적관리, 작업 배치·작업 전환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 권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근로자 건강장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등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무안국제공항 조기 개항 ‘한 목소리’

전남도의회·무안공항활성화추진위, 정부에 건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1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안국제공항 조속한 재개항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는 재개항 시기 발표 및 항행안전시설 재설치, 활주로 연장사업 등을 올 상반기 내로 완공하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재개항이 지연될수록 무안국제공항 관련 항공 사업자의 철수가 가속화돼 공항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공항 폐쇄가 10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지역 관광산업 피해액만 1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공항 외곽·보안 시설물, 진입등, 둔덕 및 방위각 정비를 하고 복층 활주로의 길이를 2800m에서 3160m로 연장해야 한다”며 “조류 충돌 예방활동 강화를 위

한 전담 인력과 현장 장비비 6월까지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도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전남도지사에게 무안국제공항 조기 정상화를 위한 건의서를 송부했다.

추진위원회는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항행안전시설 복구와 개선으로 공항 운영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 이행을 건의했다.

공항 이용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시설을 마련하고 무안국제공항의 빠른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운영 향로의 증편 및 신규 노선 유치 등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익삼 위원장은 “시간,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며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멈추고, 무안국제공항을 조속히 정상화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여행업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직원과 고객, 더불어 성장하는 주식회사 노아

시설물유지관리, 건축공사, 금속충청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옥상방수공사

물탱크도장공사

화장실공사

인증 및 특허 사회적기업인증서, 시설물유지관리 전문건설업등록증

공공기관 실적

- 목포시 수영장물탱크부다 부분보수
- 전남체육고등학교 웨이트트레이닝실 벽체보수공사
- 목포교육지원청 유치원교실 비파보수공사
- 신안교육지원청 장산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신행배수장의 보수공사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스타트업 보육실 인테리어공사
- 여수지방행정민청 거문도동대 태풍피해 복구공사
- 무안군청 삼향교 복용교 교량난간 정비공사

노아건설(주)
전남 목포시 연산백령로 1번길 51 ☎ 061-285-6100